부모의 양육행동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

이희영* · 최태진**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후기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368명(남학생, 187; 여학생, 181)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행동검사 및 심리적 분리검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준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부·모(2)×자·녀(2)에 따라 양육행동 변인군(8개 변인)과 심리적 분리 변인군(4개 변인) 간의 구조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의한 영향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 자녀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 자녀의 경우는 부와 모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갈등적·태도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변인과 기능적·정서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변인으로 양분할 수 있었다. 넷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특히 자녀의 갈등적 독립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경우 대체로 애정, 합리적 설명 및 방치 행동이, 그리고 모의 경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애정, 방치 및 과잉간섭 행동이 관계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의 의미를 이론적·실제적 측면에서의 논의하였고 결론 및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양육 행동, 심리적 분리, 후기청소년

* 부경대학교 교수, 학교상담
** 부산대학교 강사, 교육학

I. 문제 제기

최근 청소년 발달 및 적응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Mahler(1963)에 의해 분리-개별화로 명명된 심리적 분리의 개념은 정신분석이론으로부터 나왔으며, 청소년 발달에 있어 심리적 분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가들의 주장은 Mahler의 영아 분리-개별화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영아는 분화(differentiation), 실행(practicing), 절충(rapproachment) 및 리비도적 대상항상성(libidinal object constancy)이라는 4가지 하위 단계로 구성된 복잡한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Mahler, Pine & Bergman, 1975), 영아기 동안의 분리-개별화 과정의 성공적 완수는 영아로 하여금 이후의 삶의 과제 특히 청소년기의 삶의 과제를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오랫동안 청소년의 핵심적 발달 과업으로 인식되어 왔다(Blos, 1967; Erikson, 1968; Havighurst, 1953). Okun(1984)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청소년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과제이며, 향후 발달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론가들(예, Bloom, 1980; Dashef, 1984; Josselson, 1980; Kaplan, 1987)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적 기능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이 중 심리적 분리의 역할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Blos(1979)라 할 수 있다.

Blos(1979)는 앞서 진술한 Mahler 등(1975)의 영아 분리-개별화 이론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은 Mahler 등에 의해 기술된 영아의 개별화 과정과 같은 두 번째 개별화 과정을 경험한다고 가정하면서 이를 성인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Blos에 의하면, 개별화는 청소년이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에 반영되어 있는 내면화된 유아기적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뛰어넘을 때 시작

되며, 자신과 타인과의 확고한 경계 설정을 통해 부모와 구별되는 자아감을 획득할 때 완성된다고 한다. Blos(1979)는 이 과정의 성공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한 심리적 발달은 대체로 이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다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은 가족체제 이론가들(예, Bowen, 1978; Minuchin, 1974)에 의해서도 또한 강조되었다. 가족 체제 이론가들은 정신분석학적 이론가들과는 달리 분리-개별화 과정의 정신내적 측면보다는 가족 교류 과정에 더 초점을 두었다. 가족체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심리적 분리 과정은 청소년들이 분리하고자 하는 가족 체제내의 분화 수준과 관련된다(Anderson & Sabatelli, 1990; Sabatelli & Mazor, 1985). Bowen에 의하면, 전체 가족은 미분화-분화의 연속선상에서의 분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분화 능력은 가족의 분화 수준에 달려 있다. 즉, 잘 분화되지 못한 가족은 정신적인 분리-개별화 과정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반면에 잘 분화된 가족은 이 과정을 촉진시킨다. 가족 체제 이론가들은 정신분석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리-개별화 과정의 성공적 완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err와 Bowen(1988)에 의하면, 분화의 결핍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이한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가족체제 이론은 공통적으로 부모-청소년 분리 관계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청소년 발달 및 적응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은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예, Lapsley & Edgerton, 2002; Lee & Hughey, 2001; McCurdy & Scherman, 1996; Palladino & Blustein, 1994) 또한 이러한 입장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심리적 분리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

구 결과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분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 탐색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는데, 이들 변인들 중 연구자들이 특별히 주목한 변인은 가족 관련 변인이었다. 가족 관련 연구는 가족구조와의 관계 연구, 가족체제적 관점에서의 연구 및 부모의 양육태도관련 연구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심리적 분리 과정에 있어 가족의 역할을 밝히려는 경험적 연구 노력의 첫 번째 부류는 심리적 분리 과정에 있어 가족 구조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한 연구(민경화, 1994; 이철, 1999;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Lopez, Watkins, Manu & Hunton-Shoup, 1992)는 일관되게 역기능적 가족 구조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가족 구조가 청소년의 심리적 분리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유용하다. 그러나 가족 구조는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교육 및 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은 아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심리적 분리 과정에 있어 가족의 역할을 밝히려는 연구의 두 번째 부류는 가족 체제적 관점에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분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 연구자들(김수진, 1997; 김진희, 1999; 맹영임, 2001; 배제현, 1993; 최수경, 1997)은 주로 복합순환모델(Olson, Sprenkle, & Russell, 1979)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인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을 심리적 분리와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관계 양상은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이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심리적 분리와 관련하여 주목 받아온 세 번째 관점은 부모의 양육 태도 혹은 행동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다. 심리적 분리 과정에 있어 부모의 양육 태도의 중요성은 영아의 분리-개별화 과정의 완수가 양육자와 영아간의 관계의 본질에 달려있다고 한 Mahler 등(1975)의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Conger & Peterson, 1984; Kandel & Lasser, 1969; Wechter, 1983)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 예를 들어, Hoffman(1984)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심리적 독립을 발달시킨다고 하였고, Moore(1987)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으로 심리적 분리에 대한 부모 양육 행동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이 다르기 때문에(Goldernberg & Goldenberg, 1991), 양육행동을 부와 모로 분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남자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영향을 주나 여자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영향력이 없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여자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영향을 미치나 남자 자녀의 심리적 독립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분리간의 관계 유형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1) 부의 양육행동과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2) 모의 양육행동과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부모의 양육행동과 여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는 어떤 관

계가 있는가?

2-1) 부의 양육행동과 여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2) 모의 양육행동과 여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P 대학 재학생 44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명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속한 가정의 구조(정상가정, 편부모 가정, 이혼가정, 별거가정 등)가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정상가정에 속하지 않은 참가자 50명의 자료 또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368명(남학생 187명, 여학생 181명)이었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18-27세였고, 학년 분포는 1학년 218명(59.0%), 2학년 79명(21.5%), 3학년 37명(10.1%), 4학년 34명(9.2%)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행동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

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및 애정의 8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합리적 설명’은 부모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을, ‘학대’는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이 남기는 결과를,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각 문항이 측정하는 하위 양육행동과 비슷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68에서 .86의 범위에 있었다(허묘연, 1999).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애정(부모 각각 .81, .81), 합리적 설명(.82, .78), 학대(.66, .61), 과잉간섭(.83, .83), 과잉기대(.82, .81), 감독(.79, .81), 방치(.75, .73), 비일관성(.84, .83)이었다.

2) 심리적 분리 검사

대학생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개발한 심리적 분리 검사(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본 연구의 첫 번째 저자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기능적, 갈등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은 부모의 동의없이 일상생활의 문제와 개인 신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도를,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은 부모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 불안,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은 부모와 다른 태도, 가치, 신념 등을 보여주는 정도를,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은 부모로부터 과도한 승인 욕구, 정서적 거리, 밀접한 관계 등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측정한다.

이 검사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재는 69문항과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재는 6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은 22문항을 제외(예, 소수 민족에 대한 나의 견해는 어머니/아버지의 견해와 유사하다)하고 116문항을 사용하였다. PSI의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점방식은 각 척도별로 응답자가 반응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가능한 점수에서 이 점수를 빼도록 되어있다. 각 척도는 어머니에 대한 문항과 아버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따로 채점되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잘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Hoffman, 1984). PSI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네 가지 하위 척도에 대하여 .88에서 .92의 범위에 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49에서 .96의 범위에 있다(Hoffman, 1984).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에 대한 태도적, 갈등적, 정서적, 기능적 독립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8, .90, .81, .88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갈등적, 정서적, 기능적 독립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2, .89, .79, .87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1과 2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변인군 간의 구조적 분석을 목적으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먼저, 예비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자녀들(남여 대학생)간에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심리적 분리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각 하위변인 모두에 대하여 남녀간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양육행동과 심리적 분리 간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분석되어야 하는 근거를 보이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연구문제에 따라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부와 모의 양육행동 변인군(8개 요인)과 자녀의 심리적 분리 변인군(4개 요인)간의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정준상관계수와 정준부하량 계수에 기초하여 해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부모의 양육행동 및 심리적 분리 각 하위 변인에 대한 성차 분석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남녀 대학생들이 자신의 부와 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정도를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하위 변인에 대하여 평균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 변인별 기술통계량과 성차 검증

		감독	합리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부	남	M	9.31	12.92	8.29	13.71	15.09	8.71	8.77	16.15	
		SD	2.65	2.96	2.39	3.86	4.15	3.07	2.71	3.45	
	여	M	10.03	13.29	8.24	12.60	14.88	8.03	8.41	17.09	
		SD	2.65	2.98	2.01	4.02	4.29	2.44	2.62	3.64	
		<i>t</i>	2.79**	1.26	.20	2.86**	.50	2.49*	1.37	2.70**	
모	남	M	10.87	13.35	8.02	13.56	16.21	8.23	7.84	17.80	
		SD	2.45	2.64	2.13	3.65	4.02	2.56	2.35	3.12	
	여	M	12.07	13.88	8.35	12.90	15.80	7.86	7.46	18.36	
		SD	2.41	2.55	2.04	3.98	4.19	2.01	2.18	3.16	
			<i>t</i>	5.07**	2.05*	1.62	1.74	1.01	1.64	1.74	1.80

* $p < .05$ ** $p < .01$

〈표 2〉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 하위 변인별 기술통계량과 성차 검증

		기능적 독립	갈등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부	남	M	36.20	48.26	26.68	27.32	
		SD	8.68	13.48	8.86	7.38	
	여	M	35.67	49.11	29.13	26.03	
		SD	8.95	13.40	8.71	8.42	
		<i>t</i>	.60	.64	2.82**	1.64	
모	남	M	33.59	50.51	25.60	25.23	
		SD	8.14	12.01	7.27	6.61	
	여	M	27.98	49.93	24.64	19.87	
		SD	9.56	12.58	7.93	7.26	
			<i>t</i>	6.43***	.48	1.28	7.86***

* $p < .05$ ** $p < .01$

표에서 보듯이, 남녀 대학생은 부와 모에 대하여 양육행동 및 심리적 분리 정도를 달리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남녀 대학생은 부의 감독, 과잉기대, 학대, 애정적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있으며($p < .05$ 혹은 $p < .01$), 모의 경우 감독 및 합리적 양육행동의 정도에서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혹은 $p < .01$). 부모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하위 변인에서는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의 정도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정서적 독립의 정도가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p < .01$ 혹은 $p < .001$). 이러한 예비분석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분리와 관계가 부모에 따라, 그리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父-子, 母-子간 심리적 분리와 관련된 양육행동 요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 1]을 분석하고자 부와 모를 구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시에 앞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 변인과 심리적 분리 하위 변인 모두를 대응시켜 각각의 단순 이변량 상호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단순 상관분석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적 분리와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윤곽을 보여 준다. 심리적 분리 변인을 기준으로 상관계수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기능적 독립은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감독(부 $r = -.35$, 모 $r = -.30$) 및 합리적 설명(부 $r = -.32$)과 관계가 있고, 갈등적 독립은 부와 모 모두에게서 감독을 제외한 7개 양육행동 모두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부 $r = -.37 \sim -.53$). 또한 태도적 독립은 감독(부 $r = -.38$, 모 $r = -.42$), 합리적 설명(부 $r = -.42$, 모 $r = -.39$), 방치(부 $r = .38$), 애정(부 $r = -.46$, 모 $r = -.47$)과 정적 혹은 부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독립은 감독(부 $r = -.41$, 모 $r = -.40$), 합리적 설명(부 $r = -.44$), 애정(부 $r = .32$)과 관련이 있었다.

이들 결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보면 뚜렷한 특징이 발견된다. 즉, 갈등적 독립은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는 정적 상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과는 부적 상관을 지닌다는 점이다. 반면 기능적·태도적·정서적 독

립은 바람직한 양육행동과는 일관되게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후자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모든 측면의 심리적 독립과 정적 관계일 것이라는 가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변인간의 단순상관의 결과라는 제한이 있으며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3> 양육행동 변인군과 심리적 분리 변인군간의 상호상관 행렬(남)

	양육행동(독립변인군)								심리적 분리(종속변인군)				
	1	2	3	4	5	6	7	8	1	2	3	4	
1.감독	부 1.00												
	모 1.00												
2.합리	부 .55**	1.00											
	모 .44**	1.00											
3.비일	부 -.25**	-.41**	1.00										
관성	모 -.25**	-.37**	1.00										
4.과잉	부 .02	-.17*	.32**	1.00									
기대	모 .01	-.15*	.32**	1.00									
5.과잉	부 .01	-.23**	.49**	.46**	1.00								
간섭	모 -.07	-.30**	.45**	.50**	1.00								
6.학대	부 -.12	-.27**	.51**	.35**	.45**	1.00							
	모 -.13	-.15*	.42**	.27**	.29**	1.00							
7.방치	부 -.39**	-.48**	.41**	.23**	.29**	.42**	1.00						
	모 -.42**	-.44**	.36**	.13	.29**	.54**	1.00						
8.애정	부 .56**	.67**	-.38**	-.09	-.26**	-.32**	-.60**	1.00					
	모 .47**	.57**	-.33**	.01	-.30**	-.25**	-.57**	1.00					
1.기능적	부 -.35**	-.32**	.00	-.23**	-.11	-.18**	.11	-.29**	1.00				
독립	모 -.30**	-.13	-.14	-.29**	-.18**	-.24**	-.03	-.20**	1.00				
2.갈등적	부 .24**	.40**	-.49**	-.40**	-.53**	-.37**	-.47**	.45**	.14*	1.00			
독립	모 .14*	.37**	-.50**	-.42**	-.62**	-.37**	-.47**	.38**	.33**	1.00			
3.태도적	부 -.38**	-.42**	.24**	-.01	.17*	.06	.38**	-.46**	.53**	-.28**	1.00		
독립	모 -.42**	-.39**	.21**	-.04	.08	-.01	.27**	-.47**	.44**	-.06	1.00		
4.정서적	부 -.41**	-.44**	.14	-.13	.05	.01	.32**	-.49**	.75**	-.08	.61**	1.00	
독립	모 -.40**	-.27**	.02	-.19**	-.10	-.09	.22**	-.38**	.70**	.19**	.53**	1.00	

* $p < .05$ ** $p < .01$

<표 4> 양육행동 변인군과 심리적 분리 변인군간의 정준함수 산출(남)

	정준변인쌍	정준상관	Wilks Λ	χ^2	df	p
부	1	.749	.314	205.73	32.00	.000
	2	.497	.715	59.65	21.00	.000
	3	.196	.949	9.28	12.00	.679
	4	.115	.987	2.34	5.00	.799
모	1	.771	.248	249.01	32.00	.000
	2	.591	.611	87.81	21.00	.000
	3	.193	.940	10.97	12.00	.532
	4	.152	.977	4.19	5.00	.521

<표 4>를 보면 부와 모 각각에서 산출가능한 4개(독립변인군과 종속변인군에서 보다 적은 수의 변인을 포함하는 변인의 수)의 정준변인쌍(canonical variate) 중, Wilks Λ 계수를 이용한 차원축소분석(dimension reduction analysis)의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준변인쌍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먼저, 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정준변인쌍의 상관이 $R_{c1} = .749$ 와 $R_{c2} = .497$ 로 나타나 제1, 2 정준변인간에는 차례로 56.10%, 24.70%의 높은 공유변량을 지니고 있음을 보였다. 모의 경우 역시 정준변인쌍의 상관은 $R_{c1} = .771$, $R_{c2} = .591$ 로 높게 나타났는데 59.44%, 34.93% 정도의 높은 공유변량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행동 변인군은 남자 자녀의 심리적 분리 변인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5>는 부와 모를 구분하여 두 개의 정준변인쌍의 산출에 양육행동 하위변인과 심리적 분리 하위변인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 혹은 structural coefficient)과 정준 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 loading)을 산출한 결과이다. 부하량의 크기와 방향성(+,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하량의 크기라는 측면이다. Tabachnick과 Fidel(1996)은 정준상관분석을 활용할 경우 각 변인의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준부

하량 .30 이상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정준부하량 .30 이상을 갖되 제1정준변인과 제2정준변인에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보다 높은 변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양육행동 변인군과 심리적 분리 변인군의 정준부하량과 정준교차 부하량 (남)

		부				모			
		정준 부하량		정준 교차부하량		정준 부하량		정준 교차부하량	
		1	2	1	2	1	2	1	2
양육 행동	감 독	.556	.532	.416	.265	.463	.646	.357	.382
	합 리	.755	.323	.565	.160	.656	.279	.506	.165
	비일관성	-.634	.322	-.475	.160	-.673	.167	-.519	.099
	과잉기대	-.343	.709	-.257	.352	-.354	.547	-.273	.324
	과잉간섭	-.592	.570	-.443	.283	-.691	.486	-.533	.287
	학 대	-.388	.550	-.290	.274	-.363	.430	-.280	.254
	방 치	-.742	.038	-.556	.019	-.748	.043	-.577	.026
	애 정	.843	.273	.631	.136	.810	.373	.624	.220
심리적 분리	기능적 독립	-.306	-.922	-.229	-.458	-.046	-.882	-.035	-.522
	갈등적 독립	.854	-.464	.640	-.231	.824	-.520	.636	-.307
	태도적 독립	-.645	-.508	-.483	-.252	-.540	-.652	-.417	-.386
	정서적 독립	-.569	-.697	-.426	-.346	-.344	-.826	-.265	-.488

부의 양육행동과 자녀(여기서는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관계 를 보면 첫째, 부의 양육행동 변인 중 과잉기대와 학대 행동을 제외한 6 개 하위 변인이 정준부하량 -.56~.84의 범위로 갈등적(.85)·태도적 독립 (-.65) 변인과 보다 관련이 있으며(제1정준변인) 둘째, 과잉기대(.66), 학대 행동(.55)은 기능적(.922)·정서적 독립(-.697)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제2정준변인). 부의 경우에서 감독, 과잉간섭 행동의 경우 비록 제1, 제 2정준변인 모두에 어느 정도 균등하면서도 높은 부하량을 가지긴 하나 대체로 양육행동은 ‘갈등적 및 태도적 독립과 관련된 양육행동’과 ‘기능적 및 정서적 독립과 관련된 양육행동 변인’으로 양분된다고 하겠다. 모의 경

우 역시 과잉기대와 학대 행동을 제외한 6개 양육행동이 정준부하량 .46~.81의 범위로 갈등적 독립(.82) 및 태도적 독립(-.54)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결과와 유사하였고(제1 정준변인), 감독(.65), 과잉기대(.55) 또한 자녀의 갈등적(-.88)·태도적(-.65), 정서적 독립(-.83) 변인과 뚜렷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어 부의 결과와 유사하였다(제2정준변인).

다음으로 각 변인들이 정준변인쌍에 갖는 부하량의 방향을 기준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제1정준변인쌍에서는 부모 모두에게서 바람직한 양육행동(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은 모두 정적 선형결합으로 정준변인을 이루고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정준변인에서 갈등적 독립(+)은 정적으로, 태도적 독립(-)은 부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정준변인쌍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이 정적(+)으로 결합하면서,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과 대응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등과 같이 바람직할수록 갈등적 독립은 높아지나 태도적 독립은 낮아지며(부분적으로는 기능적·정서적 독립까지도)(제1정준변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을수록 기능적·정서적 독립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제2정준변인). 요컨대, <표 3>은 양육행동과 심리적 분리와 관계는 관계의 크기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결과를 보여주나, 관계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모호한 결과를 함께 보여주었다. 이는 앞선 단순상관분석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별도로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상관분석의 전체적인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자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명백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특정 양육행동은 특정 심리적 독립 변인과 보다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父-子간과 母-子간에 유사하다고 하겠다.

3. 父-女, 母-女간 심리적 분리와 관련된 양육행동 요인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연구문제 2]의 양육행동과 父-女, 母-女간의 심리적 분리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시에 앞서 마찬가지로 부와 모의 양육행동 변인군과 심리적 분리 변인군간의 이변량 상호상관 행렬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양육행동 변인군과 심리적 분리 변인군간의 상호상관 행렬 (여)

		양육행동(독립변인군)								심리적 분리(종속변인군)			
		1	2	3	4	5	6	7	8	1	2	3	4
1.감독	부	1.00											
	모	1.00											
2.합리	부	.47**	1.00										
	모	.19**	1.00										
3.비일관성	부	-.13	-.28**	1.00									
	모	-.12	-.46**	1.00									
4.과잉기대	부	.15*	-.04	.34**	1.00								
	모	.07	-.18**	.33**	1.00								
5.과잉간섭	부	.20**	-.04	.35**	.49**	1.00							
	모	.20**	-.23**	.51**	.54**	1.00							
6.학대	부	-.18**	-.34**	.39**	.17*	.28**	1.00						
	모	-.08	-.39**	.48**	.26**	.37**	1.00						
7.방치	부	-.59**	-.52**	.38**	.17*	.17*	.35**	1.00					
	모	-.53**	-.38**	.40**	.09	.14*	.34**	1.00					
8.애정	부	.47**	.62**	-.35**	-.04	-.06	-.33**	-.60**	1.00				
	모	.30**	.52**	-.43**	-.18**	-.26**	-.25**	-.56**	1.00				
1.기능적 독립	부	-.46**	-.49**	-.01	-.20**	-.27**	.06	.33**	-.36**	1.00			
	모	-.32**	-.41**	.09	-.09	-.17*	.04	.30**	-.39**	1.00			
2.갈등적 독립	부	.17*	.28**	-.48**	-.43**	-.44**	-.37**	-.47**	.38**	.06	1.00		
	모	.10	.33**	-.55**	-.52**	-.65**	-.39**	-.36**	.38**	.01	1.00		
3.태도적 독립	부	-.41**	-.47**	.10	.03	-.05	.23**	.41**	-.44**	.58**	-.25**	1.00	
	모	-.31**	-.37**	.16*	.12	.06	.09	.34**	-.47**	.59**	-.20**	1.00	
4.정서적 독립	부	-.49**	-.51**	.06	-.15*	-.24**	.18**	.39**	-.45**	.75**	-.08	.60**	1.00
	모	-.30**	-.44**	.09	-.12	-.12	.04	.30**	-.48**	.75**	.02	.58**	1.00

* $p < .05$ ** $p < .01$

단순 상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심리적 변인을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부와 모의 감독(부 $r=-.45$, 모 $r=-.32$), 합리적 설명(부 $r=-.49$, 모 $r=-.41$), 방치(부 $r=.33$, 모 $r=.30$), 애정(부 $r=-.36$, 모 $r=-.39$)과 관계가 있으며, 갈등적 독립은 대체로 감독, 합리적 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양육행동과 $r=.28\sim.65$ 의 범위에서 정적 혹은 부적으로 관계하였다. 태도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은 기능적 독립과 동일한 양육행동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태도적 독립의 경우 부모의 감독(부 $r=-.41$, 모 $r=-.31$), 합리적 설명(부 $r=-.47$, 모 $r=-.37$), 방치(부 $r=.41$, 모 $r=.34$), 애정(부 $r=-.44$, 모 $r=-.47$)과 관련이 있었다. 이들 결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보면, 갈등적 독립은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는 정적 상관을,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과는 부적 상관을 지님을 알 수 있다. 반면 기능적·태도적·정서적 독립은 바람직한 양육행동과는 일관되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들 결과는 父-子, 父-女간의 관계분석에서 나타난 관계 양상과 동일하다. 더불어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가 모든 측면의 심리적 독립과 정적관계일 것이라는 가정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라는 측면도 마찬가지다. <표 7>과 <표 8>은 <표 6>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정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7> 양육행동 변인군과 심리적 분리 변인군간의 정준함수 산출 (여)

	정준함수	정준상관	Wilks Λ	χ^2	df	p
부	1	.696	.292	222.00	32.00	.000
	2	.630	.568	102.25	21.00	.000
	3	.202	.941	11.02	12.00	.527
	4	.139	.981	3.52	5.00	.619
모	1	.772	.230	268.18	32.00	.000
	2	.625	.568	103.08	21.00	.000
	3	.202	.933	12.65	12.00	.395
	4	.165	.973	5.03	5.00	.411

<표 7>을 보면 [연구문제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출가능한 4개의 정준변인쌍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준변인쌍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먼저, 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정준변인쌍의 상관은 $R_{c1} = .696$ 과 $R_{c2} = .630$ 으로 나타나 제1, 2 정준변인간에는 차례로 48.44%, 39.69%의 공유변량을 지니고 있음을 보였다. 모의 경우 역시 정준변인쌍의 상관은 $R_{c1} = .772$, $R_{c2} = .625$ 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59.60%, 39.06% 정도의 공유변량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행동 변인군은 남자 자녀의 심리적 분리 변인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8>은 부와 모를 구분하여 두 개의 정준변인쌍의 산출에 양육행동 하위변인과 심리적 분리 하위변인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준부하량과 정준교차 부하량을 산출한 결과이다.

<표 8> 양육행동 변인군과 심리적 분리 변인군의 정준부하량과 정준교차 부하량 (여)

		부				모			
		정준 부하량		정준 교차부하량		정준 부하량		정준 교차부하량	
		1	2	1	2	1	2	1	2
양육	감독	.602	.503	.419	.317	.251	-.490	.193	-.307
행동	합리	.743	.418	.517	.263	.530	-.573	.409	-.358
	비일관성	-.571	.431	-.398	.272	-.739	-.081	-.570	-.051
	과잉기대	-.360	.662	-.251	.417	-.621	-.280	-.479	-.175
	과잉간섭	-.318	.771	-.221	.486	-.804	-.464	-.620	-.290
	학대	-.541	.146	-.377	.092	-.535	.059	-.413	.037
	방치	-.842	-.037	-.586	-.023	-.563	.421	-.434	.263
	애정	.789	.211	.549	.133	.630	-.625	.486	-.391
심리적	기능적 독립	-.458	-.799	-.319	-.503	-.170	.873	-.131	.545
분리	갈등적 독립	.830	-.551	.578	-.347	.975	.209	.752	.131
	태도적 독립	-.649	-.396	-.452	-.250	-.381	.673	-.294	.421
	정서적 독립	-.577	-.722	-.402	-.455	-.204	.917	-.157	.573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유의미한 정준부하량을 기준으로 하되 제1 혹은 제2정준변인에 상대적으로 보다 부하량이 높은 변인에 초점을 두어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의 양육행동과 자녀(여기서는 여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를 살펴보면 첫째, 부의 양육행동 변인 중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제외한 6개 하위 변인이 정준부하량 $-0.54 \sim -0.84$ 의 범위로 갈등적(.83)·태도적 독립(-.65)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제1정준변인) 둘째, 과잉기대(.66), 과잉간섭(.77)은 기능적 독립(-.80)과 정서적 독립(-.72)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제2 정준변인). 부의 경우 대체로 갈등적 및 태도적 독립과 관련된 변인과 기능적 및 정서적 독립과 관련된 양육행동 변인으로 양분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구문제 1]에서 父-子간의 정준상관 분석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징은 부하량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결과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제1정준변인쌍을 보면 부모 모두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은 모두 정적 선형결합으로 정준변인을 이루고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정준변인에서 갈등적 독립(+)은 정적으로, 태도적 독립(-)은 부적으로 결합함을 알 수 있다. 제2정준변인쌍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잉기대, 과잉간섭)이 정적(+)으로 결합하면서, 기능적독립(-)과 정서적 독립(-)과 대응하였다. 다만, 父-女관계에서는 父-子간의 관계와 달리 학대 행동이 기능적·정서적 독립이 아니라 갈등적·태도적 독립과 관계된다는 점, 과잉간섭 행동이 父-子간의 관계에서 보다 현저하게 기능적·정서적 독립에 관계되는 변인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만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모의 경우는 부와는 달리 감독을 제외한 7개의 양육행동이 $.53 \sim .80$ 의 부하량을 가지면서 갈등적 독립(.98)에만 크게 기여하여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제1정준변인), 합리적 설명(-.57)과 애정(-.63)이 기능적(.87)·태도적(.67)·정서적 독립(.92) 변인에 현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역

시 父-女간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제2정준변인). 부하량의 방향을 살펴 보면 제1정준변인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낮고 애정이 높으면 이는 자녀의 갈등적 독립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정준변인의 경우 독특한 결과를 보여 주는데, 합리적 설명이 적으며, 애정이 낮을수록, 자녀의 기능적·태도적·정서적 독립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父-女간의 결과는 [연구문제 1]에서 母-子간의 정준상관 분석결과와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母-子간의 관계에서는 과잉기대(-.35)가 갈등적 독립과 관계가 적었으나 母-女간의 관계에서는 보다 현저하다는 점(과잉기대 -.62), 갈등적 독립과 관계하는 애정 행동의 설명력이 母-子간의 관계(.81)에 비해 많이 낮다는 점(애정 .63), 그리고 애정 행동은 母-子관계에서처럼 갈등적·태도적 독립과 관계되는 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기능적·정서적 독립까지 모두 포함하는 심리적 분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이다. 요컨대, <표 7>과 <표 8>의 결과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비록 부와 모 간에는 차이가 있긴 하나 아들(남자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딸(여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분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분석결과에서 그 관계의 방향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래에서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명백하게 나타났던 결과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논쟁적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대체로 모든 양육행동이 남자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분리와 관계가 있었다. 특히 자녀의 갈등적 독립은 부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인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 높은 정적관계를,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인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는 기능적·정서적 독립과는 높은 부적관계를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애정, 존중 및 수용의 태도로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남자 대학생 자녀는 부모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 불안,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가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을 독려하며,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과 함께 자녀에게 신체적 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녀는 과도한 승인욕구와 함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개인적 신상의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 없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남자 대학생 자녀의 관계에 대한 정준상관분석 결과 또한 아버지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영향력 정도만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 관계 양상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이 남자일 경우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유사한 방식으로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기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모든 양육행동이 여자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관계가 있었고 관계 양상 또한 남자 대학생 자녀와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 자녀의 경우와는 달리, 어머니와 여자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첫 번째 정준변인쌍만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감독은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심리적 분리 변인에서도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심리적 분리 변인은 갈등적 독립이었다. 여자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아버지의 경우 방치, 애정 및 합리적 설명이었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과잉간섭, 비밀관성 및 애정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비롯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본 결과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대체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일반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와 모에 대한 역할기대를 달리한다는 것 등이 부분적인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많은 학자들(Conger & Peterson, 1984; Hoffman, 1984; Kandel & Lasser, 1969; Moore, 1987; Wechter, 1983)의 견해를 대체로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자녀의 심리적 분리가 가족 구조(예, 이철, 1999; Manu & Hunton-Shoup, 1992)나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예, 김진희, 1999; 맹영임, 2001)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예상치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결과는 1)자녀의 태도적 독립은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 일관되게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 2)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 변인 또한 비록 부모의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과 부적 관계에 있긴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역시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등의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추론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적 독립과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간의 부적 관계에 대해서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적 관계의 가장 큰 이유는 동서양간에 태도적 독립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갖는 내적 의미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심리적 분리 검사의 개발자인 Hoffman(1984)에 의하면 태도적 독립이란, 부모와 다른 태도, 가치, 신념 등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태도적 독립 척도 또한 이러한 경향성을 측정한다. 서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가 부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태도, 가치, 신념을 가진다면 이는 곧 심리적 분리의 결여이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그러나,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며 소위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Hofstede, 1980; Hue, 1988)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존경, 모방, 친화, 의존 심지어 굴종까지도 긍정적이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주장(Markus & Kitayama, 1991)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태도적 의존이란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따른 친화의 결과 태도적 독립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설득력은 태도적 독립검사의 문항에서도 유추될 수 있다. 즉, 태도적 독립 검사 문항의 경우, ‘외설적인 것에 대한 나의 견해는 부(모)와 유사하다’, ‘나의 종교적 신념은 부(모)와 유사하다’, ‘나의 생활신조는 어머니와 유사하다’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생각, 정직에 대한 가치기준, 자녀양육에 대한 소신 등의 문항이 포함되는데 그러한 태도가 부모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태도적 의존이라고 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는 검사문항의 문화적 편기(bias)와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상치 않았던 두 번째 결과는,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 또한 부분적으로 역시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등의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역시 본 연구를 통해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나, 부분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차이 및 검사문항의 문화적 편기라는 동일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 독립 및 정서적 독립과 관계된 문항으로는 ‘친구의 사진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을 느낀다(이상 정서)’, ‘부(모)의 바람이 내가 친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어려움에 처하면 대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한다(이상 기능)’ 등이 있다. 이러한 문항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속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애정이나 애착 등과 같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보여질 수 있는 전형적인 행동들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모호한 결과의 대부분은 척도상의 문제로 보인다고 하겠다. 심리적 분리척도의 타당성 검증 고찰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이후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분리, 특히 갈등적 독립과 명확한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심리적 분리 전체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 다만,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의 경우는 척도상의 문제로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의 참가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아닌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이 이들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상관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인과적 해석을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심리적 분리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특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만을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다른 결과

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부모의 양육 행동을 처음으로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파생적인 결과로 심리적 분리 척도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의의를 갖는다. 비교적 뚜렷한 관계였던 양육행동과 갈등적 독립의 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실재나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상담할 때, 상담자가 이들의 부모들을 상담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부모의 양육행동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에는 애정, 합리적 설명 및 방치가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에는 애정과 과잉간섭이 자녀의 갈등적 독립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탐색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친밀감을 나타내고 존중,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어느 정도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심리적 독립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모임이나 워크샵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부모들에게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며, 애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양육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자녀들이 심리적 독립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진(1997). 대학생의 가족체제유형 및 가족만족도와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1998). 고등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대인거리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 심리적 독립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맹영임(2001).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경화(1995). 역기능적인 가족구조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제현(1993). 청소년기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철(2000). 가족에서 심리적 독립의 결정요인과 그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1997).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제유형과 분리개별화.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1), 32-50.
- Bloom, M. V. (1980). *Adolescent-parental separation*. New York: Gardner.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Conger, J. J., & Peterson, A. C. (1984). *Adolescence and youth*. New York: Harper & Row.
- Dashef, S. S. (1984). Aspects of identification and growth during late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 239-24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ldernberg, I., & Goldernberg, H. (1991). *Family therapy: A overview*(3rd ed.), California: Brooks/Cole.
- Havighurst, R. J. (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ue,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17-36.
- Josselson, R. (1980). Ego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88-210). New York: Wiley.
- Kandel, D., & Lasser, G. S. (1969).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independent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348-358.
- Kaplan, E. H. (1987). Development of the sense of separateness and autonomy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J. Bloom-Feshbach & S. Bloom-Feshbach (Eds.), *The psychology of separation and loss: Perspectives on development, life transition, and clinical practice* (pp. 136-164). San Francisco: Jossey-Bass.

-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Norton.
- Lapsley, D., & Edgerton, J. (2002). Separation-individualiz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484-492.
- Lee, H., &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freshmen from intact famili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279-293.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Jr. (1988).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02-409.
- Lopez, F. G., Watkins, C. E., Manus, M., & Hunton-Shoup, J. (1992). Conflictual and family coalition patterns on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46-52.
- Mahler, M. S. (1963). Thoughts about development and individuat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 18.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Curdy, S. J., & Scherman, A. (1996).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th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Adolescence, 31*,

307-319.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re, D. (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98-307.
- Okun, B. F. (1984). *Working with adults: Individual, family, and career development*. Monterey, CA: Brooks/Cole.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s and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Palladino, D. E., & Blustein, D. L. (1994).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159-166.
- Rice, K. G., Cole, D. A., & Lapsley, D. K.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5-202.
- Sabatelli, R. M., & Mazor, A. (1985).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and identity formation: The integration of family system and individual developmental perspectives. *Adolescence*, 20, 619-633.
- Wechter, S. (1983). Separation difficulties between parent and young adults. *Social Casework*, 64, 97-104.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Lee, Hee-Yeong* · Choi, Tae-Ji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on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Data from 368(male, 187; female, 181)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by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ing behaviors were largely significantly related to psychological separation of college students. Second, for me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was not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s' gender; for women,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wa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s' gender. Third, parenting behaviors can be divided into factors relating to conflictual independence and attitudinal independence and factors relating to functional and emotional independence. Especially conflictual independence was influenced by parent behavior. Generally speaking, for father, affection, reasoning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neglect and for mother, affection, neglect and overinvolving were the most influential parenting behaviors in predicting conflictu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although somewhat differences exist according to gende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ory and practice were discussed.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with limitations.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 psychological separation, late adolescent

투고일 : 10월 26일, 심사일 : 12월 5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